

상향사회비교와 부정적 자기평가의 관계에서 정체성 발달과 학년의 조절효과: 대학생 표본을 중심으로*

문 현¹⁾ 이다예²⁾ 김소을¹⁾ 박수연³⁾ 박선웅^{1†}

¹⁾고려대학교 ²⁾서강대학교 ³⁾플로리다대학교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상향사회비교와 부정적 자기평가의 관계를 정체성 발달과 학년이 조절하는지 확인하는 것이었다. 정체성 발달에 대한 이중순환모형을 바탕으로 정체성 발달을 측정했고, 상향사회비교 상황이 자기평가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정체성 발달 변인 중 전념 변인들(전념 생성, 전념 동일시)이 조절할 것으로 예상했다. 더불어 뛰어난 대학생으로 묘사된 상향사회비교 대상에 대해 느끼는 지각된 성취 가능성의 차이를 근거로, 상향사회비교 여부와 정체성 발달의 상호작용이 저학년과 고학년에게서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총 121명의 국내 4년제 대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진행했다. 참여자들은 정체성 발달을 측정하는 척도에 응답하고, 각각 상향사회비교 조건과 통제 조건에 무선 할당되었으며, 자기평가에 관한 문항 및 대학교 학년을 포함한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묻는 문항에 응답했다. 분석 결과, 정체성 발달 변인 중 전념 생성 혹은 전념 동일시를 포함한 분석에서 상향사회비교 여부, 정체성 발달, 대학교 학년 간 유의한 삼원상호작용 효과가 관찰되었으며(전념 생성의 경우 경계선 상으로 유의), 저학년과 달리 고학년에에서만 자기평가에 대해 상향사회비교 여부와 정체성 발달 변인의 이원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즉, 전념 생성 혹은 전념 동일시가 낮은 고학년의 경우 상향사회비교 조건에서 통제 조건에 비해 자기평가가 유의하게 낮게 나타난 반면, 전념 생성이나 전념 동일시가 높은 고학년의 경우 상향사회비교 조건과 통제 조건에서 자기평가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주요어 : 상향사회비교, 정체성 발달, 이중순환모형, 대학생, 대학교 학년, 자기평가

* 이 연구는 2021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인문사회분야 중견연구자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NRF-2021S1A5A2A01060983).

†교신저자: 박선웅, 고려대학교 심리학부 부교수, (02841)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 145

Tel: 02-3290-2868, E-mail: sunwpark@korea.ac.kr



© 2023, Korean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ical Association.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 내리는 판단은 타인과의 비교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는다. 특히 상향 사회비교(upward social comparison)처럼 자신보다 우월하다고 지각하는 대상과의 비교는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자기평가를 초래한다(Gerber et al., 2018). 현대인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상향사회비교에 노출되며, 특히 SNS(social networking sites) 등 타인의 긍정적인 측면을 부각하는 자료에 대한 높은 접근성은 부정적인 자기평가를 야기하기 쉽다(Chou & Edge, 2012; Vogel et al., 2014). 상향사회비교는 학업, 직업, 소득 등 광범위한 범위에서 나타날 수 있는데(Kim & Ohtake, 2014), 한국인들은 사회비교 경향성이 특히 높기 때문에(구채선, 서은국, 2015; 장은영, 2009) 상향 사회비교의 부정적인 영향에 더욱 취약할 수 있다. 따라서 상향사회비교가 자기평가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하는 요인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상향사회비교 상황에서 개인이 긍정적인 자기평가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변인으로서 정체성¹⁾ 발달을 제안한다. 정체성 발달 수준이 높은 사람은 내면화된 가치관을 바탕으로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고 평가하기 때문에(박선웅, 박예린, 2019; Park & Moon, 2022; Soenens & Vansteenkiste, 2011), 상향사회비교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자기평가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본 연구는 대학생 표본을 대상으로 이와 같은 정체성 발달의 효과를 검증했다. 대학생 시기는 다양한 기회와 자원을 통해 자신의 미래 방향을 탐색하는 시기로 정체성 형성은 이 시기의 중요한 발달 과업이다(Lairio et al., 2013). 그러나 대학생들은 상향사회비교 대상(뛰어난 고학년 대학생)을 접할 때 자신의 학년에 따라 대상만큼의 성취를 이룰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다르게 지각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상향사회비

교로부터 다르게 영향받을 수 있다(Lockwood & Kunda, 1997). 종합하면, 본 연구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상향사회비교와 부정적 자기평가의 관계에서 정체성 발달이 조절변인으로 작용하는지 확인하고자 했으며, 동시에 변인 간의 관계가 대학교 학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지 확인하고자 했다.

상향사회비교와 부정적 자기평가

사회비교는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타인을 통해 처리하는 과정으로, 비교의 방향에 따라 크게 자신보다 뛰어난 상대와 자신을 비교하는 상향사회비교와 자신보다 열등한 상대와 자신을 비교하는 하향사회비교로 나뉜다(Wood, 1996). 사회비교는 비교되는 영역에서의 자신의 열등함 혹은 우월함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만들어 개인의 자기평가에 영향을 미치는데, 상향사회비교가 자기평가에 미치는 영향은 비교의 주체가 비교 대상과 자신의 차이점을 대조하는 경우에는 부정적으로, 비교대상과 자신의 공통점을 동화하는 경우에는 긍정적으로 나타난다(Muller & Fayant, 2010; Suls et al., 2002). 하지만 107개의 연구를 대상으로 한 메타분석에 의하면, 사회비교는 일반적으로 자신과 비교 대상의 차이점을 지각하는 결과를 야기했고, 그에 따라 상향사회비교는 평균적으로 부정적인 자기평가와 관련이 있었다(Gerber et al., 2018).

상향사회비교가 부정적인 자기평가를 유도한다는 결과는 현대사회에서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현대인들은 상향사회비교 정보가 만연한 여러 미디어에 일상적으로 노출되기 때문이다. 일례로, SNS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타인이 자신을 바라봐주었으면 하는 방향으로 정보를 선별해 게시하기 때문에 SNS에는 사람들을 긍정적으로 묘사하는 정보들만이 선택적으로 올라오는 경향이 있다(Gonzales & Hancock, 2011). 더불어 많은 방송 프로그램들은 커다란 집과 가구, 비싼 레스토랑 등을 지속적으로 노출시킴으로써

1) 정체성이라는 개념은 맥락에 따라 여러 의미로 사용되지만, 본 연구에서는 자기가 생각하는 진짜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을 나타내는 자기정체성(self-identity)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대중들에게 상향사회비교 정보를 제공한다(Yang & Oliver, 2010). 이와 같은 미디어상의 정보들이 비교되는 영역에서의 자기평가를 위협한다는 점은 선행 연구를 통해 확인되었다(Lewis, 2021; Vogel et al., 2014). 나아가 미디어상의 정보로 인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은 자기평가는 궁극적으로 개인의 웰빙을 저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Schmuck et al., 2019).

상향사회비교가 자기평가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특히 한국 사회에서 중요하게 다뤄질 필요가 있다. 한국인들은 다른 나라의 구성원들에 비해 사회비교에 대한 민감성이 높고(구재선, 서은국, 2015; 장은영, 2009), 학업능력, 직업, 소득 등 여러 영역에서 상향사회비교를 하는 경향이 있다(Kim & Ohtake, 2014). 따라서 이런 환경적, 성향적 특성 때문에 한국인들은 스스로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기 쉽고 삶의 질은 낮아질 수 있다. 실제로 상향사회비교와 부정적 자기평가, 그리고 삶의 질 저하와의 관련성은 국내 연구를 통해서도 밝혀진 바 있다(손영화, 2020; 조성윤 등, 2020). 따라서 상향사회비교 상황에서도 개인이 긍정적인 자기평가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요인을 탐색하는 것은 중요한 연구 주제이다.

잠재적 조절변인으로서의 정체성 발달

정체성은 내면화된 목표, 가치, 믿음에 근거해 명확하게 기술된 자기규정으로 개인에게 삶의 방향성과 의미를 부여한다(박선웅, 박예린, 2019; 윤가영 등, 2022). 선행 연구들은 정체성 발달이 삶의 만족 및 정신건강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반복적으로 보고했다(문현 등, 2022; 박선웅 등, 2023; Hardy et al., 2013; Luyckx et al., 2008; Marcia, 1993; Meeus et al., 1997; Park et al., 2023). 예를 들어, Waterman(2007)은 정체성 발달 수준이 높을수록 개인이 높은 심리적 웰빙과 삶의 만족을 누리고 있음을 밝혔으며, Bogaerts 등(2018)은 정체성 발달 수준이 높은 사람일수록

우울과 불안 수준이 낮음을 밝혔다.

본 연구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정체성 발달의 긍정적인 기능은 정체성 발달 수준이 높은 개인일수록 긍정적인 자기평가를 형성한다는 점이다(Ryeng et al., 2013; Sznitman et al., 2019). 정체성이 잘 발달하기 위해서는 특정 목표와 가치, 신념에 자신만의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는 내면화 과정이 필요하다(Park & Moon, 2022; Soenens & Vansteenkiste, 2011). 내면화 과정을 통해 형성된 정체성은 개인의 삶의 준거 기준(frame of reference)이 되며, 개인이 삶의 경험을 이해하고 해석하며 의사결정을 내리는 기준으로 작동한다. 정체성을 형성함으로써 자신만의 기준을 통해 스스로를 평가하고 세상을 해석하는 사람은 외부로부터의 부정적인 영향을 덜 받을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선행 연구는 정체성 발달이 외부의 부정적인 압력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밝혀 왔다. Marcia(1967)의 고전적인 연구에서 정체성 발달 수준이 높은 참여자들은 정체성 발달 수준이 낮은 참여자에 비해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부정적인 피드백에 덜 영향을 받고 자존감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Asch(1956)의 선분 연구와 같은 상황에서 정체성이 발달한 참여자는 집단의 압력에 덜 동조했다(Toder & Marcia, 1973). 정체성 발달 수준이 높은 청소년은 또래 압력(peer pressure)이 강한 상황에서도 이탈행동을 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Dumas 등(2012)의 연구에서 정체성 발달 수준이 높은 청소년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 위험 행동(risk behavior)에 관한 또래 압력에 더 저항적인 모습을 보였다. 또 Forney와 Ward(2019)는 종단연구를 통해 높은 정체성 발달 수준을 보고한 청소년은 다음 측정 시점에서 또래 압력에 대한 저항이 높음을 밝혔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자기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향사회비교 상황에서 정체성 발달이 개인의 자기평가를 보호하는 기능을 할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한편, 상향사회비교와 자기평가의 관련성을 살펴본 선행 연구들이 정체성의 잠재적 조절효과를 직접적으로 살펴진 않았지만, 정체성과 유사한 몇몇 개념들이 상향사회비교의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보호 요인으로 작용함을 보고한 경우는 소수 존재한다. Morse와 Gergen(1970)의 Mr. Clean 대 Mr. Dirty 연구가 대표적인 예시이다. 이 연구에서 참여자들은 상향사회비교 대상인 Mr. Clean에 노출되었을 때 Mr. Dirty에 노출되었을 때보다 더 자기평가가 부정적이었지만, 자기일관성(self-consistency)이 상향사회비교와 부정적 자기평가의 관계를 조절했다. 이 연구에서 자기일관성은 다양한 자기개념들이 서로 충돌 없이 조화를 이루는지를 정도를 의미하므로 목표, 가치를 포함해 내면의 여러 자기개념들이 유기적으로 통합되어 명확한 자기이해를 형성한 정체성의 개념과 유사하다. 또한 최근 Carter와 Vartanian(2022)은 이상적인 신체 이미지에 기반한 상향사회비교와 신체불만족 간의 관계를 자기개념 명확성(self-concept clarity)이 조절한다는 것을 밝혔다. 이 연구에서 자기개념 명확성은 스스로에 대해 안정적이고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정도로 정의되었으며, 이는 자신에 대한 정교한 이해를 기반으로 형성된 명확한 자기이해를 말하는 정체성의 개념과 밀접하다. 본 연구에서는 정체성 발달 정도가 상향사회비교와 부정적 자기평가 간의 관계를 조절하는지 확인했다.

정체성 발달에 대한 이중순환모형

정체성 발달이라는 주제로 처음으로 양적 연구를 시작한 Marcia(1966)는 정체성 지위(identity status)를 범주적으로 구분해 각 지위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을 분석했다. 이러한 접근은 등장 이후 큰 주목을 받고 많은 연구로 이어졌으나(Marcia, 1993 참조), 정체성 발달이 범주형으로 측정되어 분석에 한계가 있고, 더 중요하게는 정체성의 유지 및 변화의 역동적 과정을 설명하

지 못한다는 이유로 비판을 받았다(Meeus et al., 1999; Stephen et al., 1992). Luyckx 등(2006)의 이중순환모형은 이와 같은 기존 정체성 이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연속형 측정 도구를 사용함으로써 정체성 발달의 과정을 세분화했다.

이중순환모형은 정체성의 형성과 정체성에 대한 평가를 별도의 발달 과정으로 분리하며 전자를 첫 번째 순환으로, 후자를 두 번째 순환으로 규정한다. 구체적으로, 첫 번째 순환은 다양한 대안을 넓게 살펴보고 정보를 얻고 비교하는 두루 탐색(exploration in breadth)과 그 결과로 하나의 대안에 대해 초기 전념을 형성하는 전념 생성(commitment making)으로 이뤄진다. 초기 전념이 형성되고 나면 이후에는 자신이 선택한 대안에 대해 더 자세히 살펴보고 자신과의 적합성을 심층적으로 탐구하는 과정이 이어지는데, 이 과정이 두 번째 순환이다. 두 번째 순환은 전념을 생성한 대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깊이 탐색(exploration in depth)과 그 결과로 특정 선택지에 대한 확신을 강화하는 전념 동일시(identification with commitment)로 구성되어 있다. 만일 깊이 탐색의 결과로 전념을 생성한 선택지가 불만족스럽게 느껴진다면 새로운 전념을 생성하는 첫 번째 순환 과정이 다시 나타난다. 이처럼 이중순환모형에서는 두 개의 탐색 변인과 두 개의 전념 변인이 각각 정체성 발달에서의 다른 과정을 설명하고 있으며, 모형에서 제시한 잠재적인 정체성 발달은 두루 탐색, 전념 생성, 깊이 탐색, 전념 동일시의 순서로 나타난다.

더불어, Luyckx 등(2008)은 정체성 발달을 설명하는 네 가지 변인 구분에 더해, 정체성 발달의 역기능적 측면인 반추적 탐색(ruminative exploration)을 변인으로 추가했다. 반추적 탐색은 자신에 대한 고민을 지속하기는 하지만 마땅한 답을 얻지 못하는 상태를 말한다. 반추적 탐색은 심리적 웰빙, 삶의 만족, 자존감 등 긍정적 변인들과는 부적 상관을 갖고 반사회적 행동, 우울 등과는 정적 상관을 갖는 등 개인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Ritchie et

al., 2013). 이처럼 정체성 발달의 이중순환모형은 다섯 가지 변인의 구분을 통해 정체성 발달의 역동을 설명함과 더불어 정체성 발달에서 나타날 수 있는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모두 포착한다는 장점을 가진다. 다섯 가지 변인의 구분은 독일, 터키, 프랑스 등을 포함한 여러 국가의 표본에 대한 요인 분석에서 타당성이 검증되었으며(Boz & Kiremitci, 2023; Luyckx et al., 2008; Zimmermann et al., 2015), 국내 표본에서도 다섯 가지 변인 구분의 적용 가능성이 확인되었다(Park et al., 2023).

앞서 언급했듯, 상향사회비교가 자기평가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정체성 발달 수준이 조절할 수 있는 이유는 개인적인 의미 부여 과정을 통해 형성된 내면의 준거 기준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런 준거 기준의 존재 여부는 대안에 대해 넓거나 깊게 탐색하는 과정보다는, 특정 대안에 전념하고 그에 동일시하는 과정과 더 밀접한 관련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정체성 발달의 다섯 가지 하위 변인 중 두 전념 관련 변인(전념 생성, 전념 동일시)이 상향사회비교와 부정적 자기평가 간의 관계를 조절할 것으로 예상했다.

대학생의 특성과 지각된 성취 가능성의 학년별 차이

정체성 형성은 대학생 시기에 두드러지는 심리적 현상이다. 정체성의 개념을 제안했던 Erikson(1968)은 정체성 발달을 청소년기의 발달 과업으로 제안했으나, 산업화의 진행과 함께 사회구조가 변화하면서 정체성 발달의 시기는 청소년기에 제한되지 않고 성인모색기(emerging adulthood)로 확대되었다(Arnett, 2000). 성인모색기는 청소년과 성인 사이 과도기적 시기로 신체적, 법적으로는 성인이 되었으나 경제적, 심리적으로는 성인으로서의 독립성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상태이다. 대학생 시기는 지식의 습득뿐 아니라 동아리나 인턴 등 학업 외 활동이 활발

히 이뤄지는 시기로 자신에 대한 탐색과 세상에 대한 이해를 발전시키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청소년기는 물론 성인기와도 구분되며 성인모색기를 잘 대표한다(Arnett, 2000). 나아가 한국 대학생의 경우 입시에 몰두하는 청소년기의 환경적 특성으로 인해 자유로운 탐색이 용이해지는 대학생 시기까지 정체성 발달 과업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윤가영 등, 2022). 따라서 정체성 발달 수준에 따른 심리적 특성의 차이를 살피기에 적절한 표본으로 대학생을 선정했다.

대학생에게서 상향사회비교를 유발할 만한 자극을 구성하기 위해 대학생이 주로 어떤 주제를 중요하게 여기고 어떤 주제에서 상향사회비교를 하는지 선행 연구를 검토했다. 그 결과 대학생 시기 가장 의미 있는 주제는 학업 요인과 진로 요인으로 나타났다. 김범준(2011)의 연구에서 대학생의 불행 요인 중 취업 걱정과 낮은 성적이 가장 영향력 있는 요인이었으며,곽현주와 김현주(2013)에서 대학생의 우울을 설명하는 요인 중 학업 문제와 진로 문제가 가장 큰 효과크기를 가졌다. Wheeler와 Miyake(1992)에서도 대학생들이 상향사회비교를 가장 많이 하는 영역은 학업 영역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Pisarik 등(2017)의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진로 불안을 가중하는 핵심 요인 중 하나로 상향사회비교가 언급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학업과 진로 요인에서 상향사회비교 자극을 구성함으로써 모든 대학생에게서 상향사회비교가 일어날 수 있음을 전제했다.

한편, 대학생은 학년에 따라 상향사회비교 대상의 우월한 특성에 대해 성취 가능성을 다르게 지각할 수 있으며, 이는 상향사회비교가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조절할 수 있다. 이 가정은 Lockwood와 Kunda(1997, Study 2)의 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참여자와 동일한 전공의 뛰어난 성과를 보이는 졸업 예정 대학생을 상향사회비교 자극으로 제시한 후, 참여자의 자기평가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관찰했다. 그 결과 저학년과 고학년에게서 상향사회비

교가 자기평가에 미치는 영향은 다르게 나타났는데, 저학년의 경우 상향사회비교 대상에 노출된 조건에서의 자기평가가 통제 조건보다 높게 나타난 것과 달리 고학년의 경우 상향사회비교 대상에 노출된 조건에서의 자기평가가 통제 조건보다 낮게 나타났다. 이 결과는 제시된 대상에 대한 지각된 성취가능성의 차이로 설명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저학년의 경우 대학생활 동안 대상 만큼의 성취를 이룰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상향사회비교 대상이 자기고양 효과를 유도한 반면 고학년의 경우 대학생활 동안 대상 만큼의 뛰어난 성취를 이룰 여유가 부족하기 때문에 상향사회비교가 자기평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상향사회비교 자극은 대학생 시기의 학업과 진로 준비를 주제로 하기 때문에 아직 학업적 성취를 보완하거나 진로 준비를 할 여유가 있는 저학년과 졸업과 사회진출을 목전에 둔 고학년에게서 지각된 성취 가능성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지각된 성취 가능성에서의 차이를 근거로(Lockwood & Kunda, 1997) 상향사회비교가 자기평가에 미치는 영향이 참여자가 고학년인지 저학년인지에 따라 조절될 것으로 예상했다.

연구개요

본 연구는 상향사회비교와 부정적 자기평가 간의 관계를 정체성 발달과 대학교 학년이 조절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이를 위해 대학생에게서 일반적으로 사회비교가 발생할 만한 주제인 학업과 진로 주제로 상향사회비교 자극을 구성했다. 본 연구에서 정체성 발달은 Luyckx 등(2006, 2008)의 이중순환모형에 따라 개발된 척도를 이용하여 측정했다. 각 변인의 특성을 고려할 때 하위변인 중 전념과 관련된 변인인 전념 생성과 전념 동일시가 상향사회비교가 자기평가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조절할 것으로 예상했다. 더불어 학년에 따라 상

향사회비교 대상에 대해 느끼는 지각된 성취 가능성이 다를 것이라는 점을 근거로 상향사회비교가 자기평가에 미치는 영향과 그 관계에서의 정체성 발달의 조절효과가 참여자가 고학년인지 저학년인지에 따라 다를 것으로 예상했다. 즉, 상향사회비교 조작 여부와 정체성 발달, 그리고 참여자의 대학교 학년이 자기평가에 대해 삼원 상호작용 효과를 가질 것으로 예상했다.

방 법

연구 참여자 및 절차

참여자는 국내 4년제 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 121명(남성 57명, 여성 64명)으로 전문 온라인 설문 업체를 통해 모집되었다. 참여자의 연령은 만 19세부터 29세로, 평균 연령은 22.93세였다. 참여자의 대학교 학년은 1학년 19명, 2학년 20명, 3학년 39명, 4학년 43명으로 구성되었다. 참여자들은 자기보고식 척도에 응답한 후 상향사회비교 혹은 통제 조건에 무선 할당되어 해당 자극물을 읽고 자기평가 문항에 응답했다. 본 연구는 저자들이 소속된 기관의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참여자들은 설문에 앞서 연구 안내문을 읽고 참여에 동의했으며 소정의 금전적 보상을 받았다.

측정 도구

정체성 발달

참여자의 정체성 발달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Luyckx 등(2008)이 개발하고 Park 등(2023)이 한국어로 번안한 정체성 발달의 다차원 척도(Dimensions of Identity Development Scale; DIDS)를 사용했다. 이 척도는 두루 탐색, 깊이 탐색, 반추적 탐색, 전념 생성, 전념 동일시의 다섯 개의 하위 요인을 각 5문항을 이용해 측정하며, 총 2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참여자들은 각 문항

이 자신을 얼마나 잘 묘사하는지에 대해 7점 척도(1점 = 전혀 그렇지 않다, 7점 = 매우 그렇다)로 응답했다. 예시 문항으로는 '내가 선택할 수도 있는 다양한 삶의 방향을 적극적으로 탐색한다(두루 탐색; $\alpha = .91$)', '내가 세워놓은 삶의 목표가 정말 내게 잘 맞는지 생각한다(깊이 탐색; $\alpha = .80$)', '어떤 방향으로 삶을 살고 싶은지에 대한 고민을 멈추기가 힘들다(반추적 탐색; $\alpha = .79$)', '내가 가고자 하는 삶의 방향에 대해 결정을 내렸다(전념 생성; $\alpha = .92$)', '미래에 대한 나의 계획이 나에게 적합하다고 확신한다(전념 동일시; $\alpha = .90$)'가 있다.

자기평가

자기평가는 대학생으로서의 자신에 대해 평가하는 6문항으로 측정했으며($\alpha = .85$), 여러 선행 연구에서 사용한 문항을 참고해 구성했다(오은혜, 탁진국, 2012; 이동하, 탁진국, 2008; 이보슬, 2011; Greenhaus et al., 1990). 참여자는 각 문항에 대해 7점 척도(1점 = 전혀 그렇지 않다, 7점 매우 그렇다)로 응답했다. 예시 문항으로는 '나는 미래에 내가 성공할 것으로 믿는다', '나는 학생으로서 나 스스로가 만족스럽다', '나의 성취는 보잘 것 없다(역채점) 등이 있다.

실험적 조작

참여자들은 상향사회비교 조건 또는 통제 조건에 무선으로 할당되었다. 참여자는 각 조건에 맞춰 제작된 가상의 뉴스 기사를 읽었다. 뉴스 기사의 형식을 사용함으로써 참여자가 사회비교의 대상이 실제 존재하는 인물이라고 믿을 수 있도록 유도했다. 상향사회비교 조건(61명)에서 참여자들은 매우 성공적으로 그려진 대학생의 기사를 읽었다. 기사 속의 대학생은 높은 학점을 유지하고 있으며, 장학금을 받았고, 동아리 활동에 기반한 스타트업 창업에 성공해 대기업으로부터 투자를 받는 등 대학생으로서 뛰어난 성취를 이룬 것으로 묘사되었다. 선행 연

구에 근거해 사회비교 대상의 이름은 참여자의 성별에 맞춰 제시했다(Lockwood & Kunda, 1997). 직접적으로 학년을 언급하지 않았으나, 최근 활동으로 창업, 공모전 등 진로 관련 비교과를 제시하고 인터뷰 내용으로 학점 관리나 동아리 활동을 과거회상 방식으로 적음으로써 상향사회비교 대상이 대학생활을 오래 한 고학년임을 암시했다. 통제 조건(60명)의 참여자들은 캠퍼스 내 길고양이에 대한 중성화 사업(Trap-Neuter-Return)을 진행하는 동아리에 대한 기사를 읽었다. 동아리 활동에 대한 언급이 있는 것은 두 조건 모두에서 동일하지만, 통제 조건에서는 사회비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구성원에 대한 언급 없이 중성화 사업이 왜 필요하고 어떤 활동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언급만 있었다.

자료 분석

모든 자료 분석에는 SPSS 27을 이용했다. 기초 분석으로 각 변인에 대한 기술통계분석과 주요 변인 간 단순상관분석을 진행했으며, 조건별로 종속변인의 차이를 확인하는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했다. 이후 연구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SPSS PROCESS macro(Model 3; Hayes, 2013)를 이용해 삼원상호작용 분석을 진행했다. 독립변인으로는 상향사회비교 조작 여부를, 종속변인으로는 자기평가를, 조절변인으로는 정체성 발달 변인과 학년을 넣었다. West 등(1996)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라 상향사회비교 여부는 각각 통제 조건을 0, 상향사회비교 조건을 1로 코딩했고, 학년은 연속변인으로 처리했다. 정체성 발달로는 다섯 개의 하위 변인(전념 생성, 전념 동일시, 두루 탐색, 깊이 탐색, 반추적 탐색)을 각각 넣어 다섯 번 분석을 진행했다.

결 과

기술통계분석 결과 및 주요 변인 간 상관분

표 1.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와 조건별 상관관계

변인	1	2	3	4	5	6	7	평균	표준편차
1. 두루 탐색	-	.85**	.17	.60**	.68**	-.15	.54**	4.76	1.11
2. 깊이 탐색	.83**	-	.25	.64**	.67**	-.10	.50**	4.71	1.05
3. 반추적 탐색	-.05	-.06	-	-.16	-.19	.01	-.20	4.82	1.07
4. 전념 생성	.68**	.75**	-.30*	-	.91**	-.07	.62**	4.26	1.16
5. 전념 동일시	.73**	.77**	-.34**	.94**	-	-.10	.68**	4.30	1.09
6. 학년	-.01	-.08	-.11	-.01	-.07	-	-.10	2.90	1.08
7. 자기평가	.64**	.61**	-.17	.54**	.59**	-.03	-	4.19	1.06
평균	5.19	4.97	4.53	4.61	4.57	2.85	4.84	-	-
표준편차	0.95	0.91	1.08	1.28	1.21	1.07	0.92	-	-

주. 대각선의 윗부분은 상향사회비교 조건(61명), 아랫부분은 통제 조건(60명)에 해당.

* $p < .05$. ** $p < .01$.

석 결과를 조건별로 구분하여 표 1에 제시했다. 자기평가는 두 조건 모두에서 두루 탐색, 깊이 탐색, 전념 생성, 전념 동일시와 유의한 정적 상관관이 있었다. 성별과 나이는 다섯 가지 정체성 발달 요인 및 자기평가와 유의한 관련이 나타나지 않았다. 조건에 따른 자기평가 점수를 비교한 결과, 상향사회비교 조건의 참여자(평균 = 4.19)가 통제 조건의 참여자(평균 = 4.84)에 비해 더 낮은 자기평가를 보였다, $t(119) = 3.64, p < .001, d = 0.66$. 이러한 결과는 상향사회비교가 부정적 자기평가로 이어진다는 기존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Gerber et al., 2018).

연구 가설을 확인하기 위해 자기평가에 대해 상향사회비교 여부, 정체성 발달, 학년 간의 삼원상호작용 분석을 진행했다. 다섯 개의 정체성 발달 변인을 각각 포함한 분석 결과를 표 2에 제시했다. 먼저 정체성 발달 변인으로서 전념 생성을 넣어 분석한 결과 삼원상호작용이 경계선 상에서 유의했다. 삼원상호작용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학년에 따라 상향사회비교와 전념 생성 간의 이원상호작용을 분석했다. 그 결과 그림 1의 상단에 나타난 것처럼, 저학년에게서는 상향사회비교 여부와 전념 생성의 상호작용

이 유의하지 않았던 반면, $R(1, 113) = 0.08, p = .772$, 고학년에게서는 두 변인의 상호작용이 유의하게 나타났다, $R(1, 113) = 5.28, p = .023$. 고학년에에서 나타난 이원상호작용의 내용을 살펴보기 위해 단순기울기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념 생성이 낮은 고학년 집단의 경우 상향사회비교 자극을 마주했을 때 통제 조건에 비해 자기평가가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다, $b = -1.08, SE = 0.30, p < .001, 95\% CI [-1.66, -0.49]$. 그러나 전념 생성 수준이 높은 고학년 집단에서는 상향사회비교 여부에 따라 자기평가가 차이 나지 않았다, $b = -0.09, SE = 0.31, p = .764, 95\% CI [-0.70, 0.51]$.

다음으로 정체성 발달 변인으로 전념 동일시를 넣어 분석한 결과, 상향사회비교 여부와 학년, 전념 동일시 간 삼원상호작용이 유의했다(표 2). 앞서와 마찬가지로, 상향사회비교 여부와 전념 동일시 간의 이원상호작용 효과를 학년에 따라 분석한 결과(그림 1, 하단), 저학년에게서는 상향사회비교 여부와 전념 동일시 간의 상호작용이 유의하지 않았던 반면, $R(1, 113) = 0.22, p = .641$, 고학년에게서는 두 변인 간의 상호작용이 유의하게 나타났다, $R(1, 113) = 8.26, p =$

표 2. 자기평가에 대한 상향사회비교 여부, 정체성 발달, 학년의 삼원상호작용 분석

예측 변인	<i>b</i>	<i>SE</i>	<i>LLCI</i>	<i>ULCI</i>	β	<i>p</i>	<i>R</i> ²
전념 생성							
상향사회비교 조건(A)	1.71	1.61	-1.48	4.89	.82	.290	.01
전념 생성(B)	0.63	0.23	0.17	1.09	.74	.008	.04
학년(C)	0.37	0.37	-0.36	1.09	.38	.318	.01
A * B	-0.43	0.35	-1.12	0.26	-.94	.218	.01
A * C	-1.03	0.52	-2.07	0.01	-1.62	.052	.02
B * C	-0.09	0.08	-0.24	0.07	-.48	.271	.01
A * B * C	0.21	0.11	-0.01	0.44	1.48	.067	.02
전념 동일시							
상향사회비교 조건(A)	2.43	1.60	-0.73	5.60	1.17	.131	.01
전념 동일시(B)	0.84	0.23	0.38	1.30	.93	<.001	.06
학년(C)	0.61	0.35	-0.08	1.30	.63	.080	.01
A * B	-0.58	0.34	-1.26	0.10	-1.27	.093	.01
A * C	-1.35	0.52	-2.39	-0.31	-2.12	.011	.03
B * C	-0.13	0.07	-0.27	0.01	-.71	.074	.01
A * B * C	0.28	0.11	0.05	0.51	1.93	.017	.03
두루 탐색							
상향사회비교 조건(A)	2.01	2.13	-2.20	6.23	.97	.345	.00
두루 탐색(B)	0.89	0.28	0.33	1.45	.90	.002	.05
학년(C)	0.53	0.54	-0.54	1.59	.54	.329	.01
A * B	-0.44	0.41	-1.26	0.38	-1.05	.292	.01
A * C	-0.70	0.73	-2.14	0.75	-1.10	.341	.00
B * C	-0.11	0.10	-0.31	0.09	-.60	.300	.01
A * B * C	0.12	0.14	-0.16	0.41	.93	.395	.00
깊이 탐색							
상향사회비교 조건(A)	2.04	2.36	-2.65	6.72	.98	.391	.00
깊이 탐색(B)	0.95	0.32	0.31	1.59	.90	.004	.05
학년(C)	0.63	0.56	-0.48	1.74	.64	.354	.01
A * B	-0.43	0.47	-1.36	0.49	-1.03	.264	.00
A * C	-0.71	0.78	-2.25	0.83	-1.12	.361	.00
B * C	-0.12	0.11	-0.34	0.09	-.68	.266	.01
A * B * C	0.12	0.16	-0.19	0.42	.88	.457	.00
반추적 탐색							
상향사회비교 조건(A)	1.36	2.23	-3.05	5.77	.65	.542	.00
반추적 탐색(B)	0.46	0.29	-0.12	1.03	.47	.121	.02
학년(C)	0.98	0.46	0.06	1.90	1.00	.038	.03
A * B	-0.37	0.45	-1.27	0.53	-.90	.415	.00
A * C	-0.63	0.76	-2.14	0.87	-1.00	.405	.01
B * C	-0.22	0.10	-0.42	-0.03	-1.26	.025	.04
A * B * C	0.12	0.16	-0.19	0.43	.96	.437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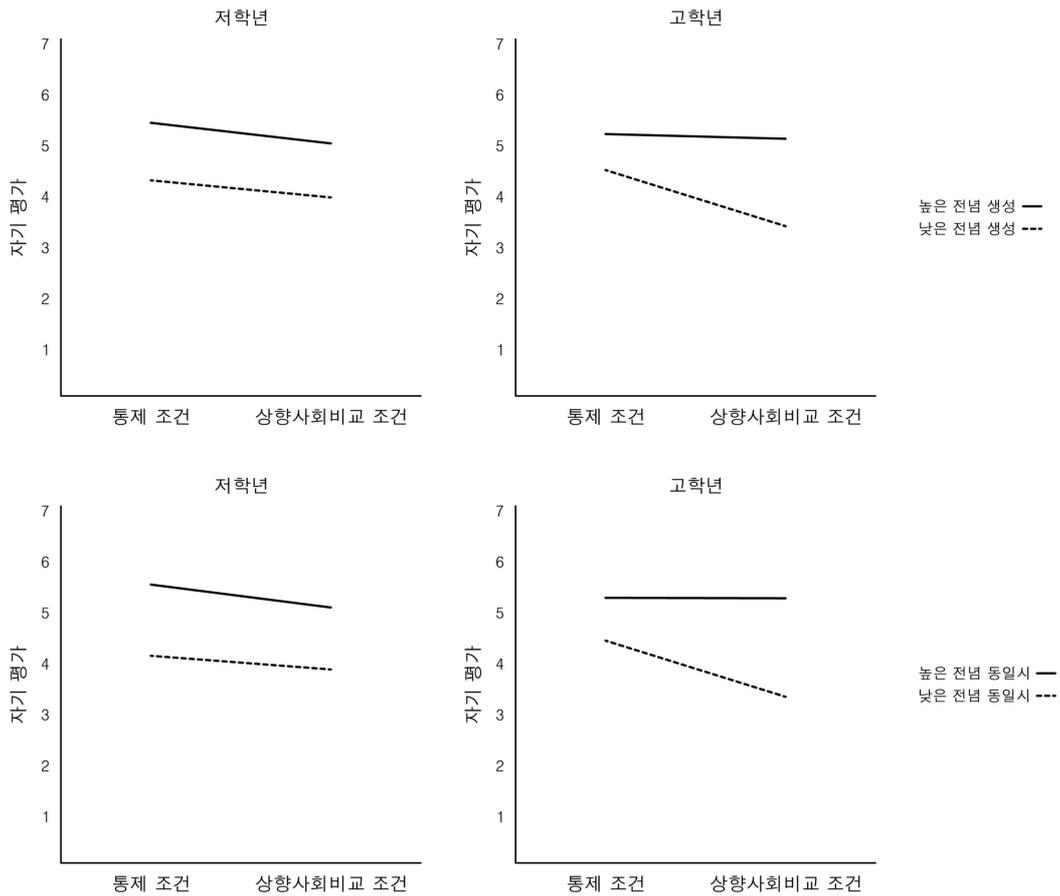


그림 1. 전념 생성과 전념 동일시를 포함한 변인 간 삼원상호작용 분석 결과

.005. 단순기울기 분석 결과, 전념 동일시가 낮은 고학년 집단의 경우 상향사회비교 조건에서 통제 조건에 비해 유의하게 낮은 자기평가가 관찰되었다, $b = -1.20$, $SE = 0.27$, $p < .001$, 95% CI [-1.73, -0.66]. 반면, 전념 동일시가 높은 고학년의 경우에는 상향사회비교 여부에 따라 자기평가가 달라지지 않았다, $b = 0.00$, $SE = 0.30$, $p = .998$, 95% CI [-0.60, 0.60].

정체성 발달 변인으로 탐색 관련 변인인 두루 탐색을 넣어 분석을 진행한 결과, 자기평가에 대한 두루 탐색의 주효과가 관찰되었지만, 그 외 변인의 주효과나 변인 간 상호작용은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정체성 발달 변인으로

깊이 탐색을 넣어 분석한 결과, 두루 탐색과 마찬가지로 자기평가에 대한 깊이 탐색의 주효과가 유의한 반면, 그 외 변인의 주효과나 변인 간 상호작용은 유의한 수준으로 관찰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정체성 발달 변인으로 탐색의 부정적인 측면인 반추적 탐색을 넣어 분석을 진행한 결과, 자기평가에 대한 학년의 주효과와 반추적 탐색과 학년 간의 이원상호작용은 유의하게 나타났다. 하지만, 세 개의 탐색 변인 모두에서 유의한 삼원상호작용은 나타나지 않아 추가적인 분석을 진행하지는 않았다.

논 의

본 연구의 목적은 상향사회비교와 부정적 자기평가 간의 관계를 정체성 발달과 학년이 조절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었다. 정체성 발달은 Luyckx 등(2006, 2008)의 이중순환모형에 근거해 측정했으며 정체성에 대한 결정을 의미하는 전념 변인인 전념 생성과 전념 동일시가 상향사회비교가 자기평가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조절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본 연구는 정체성 형성의 주요한 시기에 놓인 대학생 표본을 연구 대상으로 설정했으며, 대학생들이 일반적으로 상향사회비교를 할 만한 대상에 대해 저학년과 고학년이 지각하는 성취 가능성이 다르다는 점을 근거로(Lockwood & Kunda, 1997), 상향사회비교와 부정적 자기평가의 관계에서 학년의 조절효과를 예상했다.

연구 결과, 상향사회비교 여부와 정체성 발달, 대학교 학년 사이 삼원상호작용은 Luyckx 등(2006, 2008)이 제시한 변인 중 전념 생성을 포함한 분석에서는 경계선 상으로 유의하게, 전념 동일시를 포함한 분석에서는 유의하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고학년 중 전념 생성 혹은 전념 동일시가 낮은 참여자들은 통제 조건에 비해 상향사회비교 조건에서 자신을 더 부정적으로 평가했으나, 고학년 중 전념 생성이나 전념 동일시가 높은 참여자들은 상향사회비교 상황에서도 통제 조건과 비슷하게 긍정적인 자기평가를 유지했다. 이와 같은 이원상호작용은 저학년에게서는 관찰되지 않았다. 정체성 발달 변인 중 탐색과 관련된 변인에서는 이와 같은 삼원상호작용이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선행 연구들은 정체성 발달의 여러 긍정적인 기능에 대해 주목해 왔다. 정체성 발달은 개인의 삶의 질에 기여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삶의 만족, 자존감, 심리적 웰빙 등과 정적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Park et al., 2023; Ryeng et al., 2013; Waterman, 2007; Waterman et al., 2013). 더불어 정체성 발달은 역경이나 부정적인

또래 압력과 같은 상황적 어려움이 있을 때도 개인이 긍정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으로 나타났다(Dumas et al., 2012; Forney & Ward, 2019; Luyckx et al., 2012). 본 연구의 결과는 상향사회비교의 부정적 영향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정체성 발달이 개인의 긍정적인 자기평가를 유지하는 데 기여하는 변인임을 밝힘으로써 정체성 발달의 긍정적 기능을 주장하는 선행 연구 결과를 지지하는 동시에 새로운 연구 맥락을 제시했다.

명확한 자기이해가 상향사회비교의 영향을 조절할 수 있다는 아이디어는 선행 연구에서 제안되었으나,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 예를 들어, Morse와 Gergen(1970)의 연구는 상향사회비교가 자기평가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는 변인으로서 자기일관성을 제안했고, 그들의 연구에서 자기일관성이 높은 참여자들은 그렇지 않은 참여자와 달리 상향사회비교 상황에서도 자기평가가 부정적으로 변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후의 연구들은 사회비교의 영향에 대한 조절변인을 찾기 보다는 사회비교를 하는 정도 자체가 성격 변인임을 주장하며 사회비교 경향성(social comparison orientation)의 개인차에 주목해 왔다(Buunk & Gibbons, 2007). 한편, SNS의 유행과 함께 상향사회비교가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이 만연해지며(Verduyn et al., 2020), 최근의 연구들에서 상향사회비교의 부정적인 영향을 완충하는 변인으로 명확한 자기이해의 중요성이 다시 부상했다. 일례로 Carter와 Vartanian(2022)의 연구는 인스타그램에 게시된 여성 모델의 사진을 상향비교 자극으로 제시했을 때 신체불만족이 높아지는 현상이 자기개념 명확성이 낮은 여성들에게서 더 두드러짐을 밝혔다. 본 연구는 상향사회비교 상황을 의도치 않게 마주했을 때 자기평가가 낮아지는 현상을 정체성 발달이 조절할 수 있음을 밝힘으로써 앞서 언급한 최근의 연구 흐름과 맥을 같이 한다.

본 연구는 정체성 발달의 측면 중에서도 특히 전념의 기능에 주목했다. 탐색과 전념의 개

념을 제안한 Marcia(1966)의 경우 특정 개념에 더 중점을 두어 설명하지 않았지만, 후속 연구들은 개인의 긍정적 기능과 웰빙에 있어서 전념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해 왔다(Berzonsky, 2003; Berzonsky & Ciecuch, 2016). 이는 탐색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결정하기 전 다양한 선택지를 고려하는 과정이며 그 이후에 특정 대안을 결정하는 전념의 과정이 이어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자연스러운 결론이다. 스스로의 선택에 근거한 전념은 내면화된 준거 기준으로 기능하고 개인에게 삶의 목적성과 방향성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정체성 발달이 개인의 삶의 안녕에 기여하는 근거가 되며(Berzonsky, 2003; Bosma & Kunnen, 2001), 선행 연구는 전념 생성과 전념 동일시가 개인에게 통일감을 부여함으로써 웰빙에 기여한다고 밝힌 바 있다(Luyckx et al., 2010). 본 연구는 정체성 발달을 설명하는 두 개념인 탐색과 전념이 상향사회비교의 맥락에서 개인의 자기평가를 보호함에 있어 다르게 기능할 수 있다는 점을 밝힘으로써 두 개념의 특성적 차이에 대한 근거를 더한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전념 생성과 전념 동일시의 기능적 차이에 대해 다루지 않았으나 후속 연구에서는 두 변인의 효과를 분리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Luyckx 등(2006)의 이중순환모형에 따르면, 첫 번째 순환의 결과로 다양한 대안에 대한 두루 탐색을 통해 특정 대안으로 결정을 내린 전념 생성이 나타나며, 이후 두 번째 순환의 결과로 전념을 생성한 대안을 더 신중하게 고려하는 깊이 탐색의 결과로 자신의 선택에 대한 확신을 강화하는 전념 동일시가 나타난다. 이와 같은 개념적 특성을 고려하면 전념 생성이 높아도 전념 동일시가 낮게 나타날 수 있는 것과 달리, 전념 동일시가 높은 사람에게서는 전념 생성 또한 높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두 변인을 분리하지 않고 분석을 진행했을 때 나타나는 전념 생성의 효과는 사실 전념 동일시의 효과를 반영한 결과일 수 있으며, 이중순환모형을 제안했던 Luyckx 등(2006)도 정신건강과

전념의 관계는 사실 전념 생성이 아니라 전념 동일시로 인한 결과라고 주장한 바 있다. 본 연구의 분석에서도 자기평가에 대한 전념 생성의 설명량과 전념 생성을 포함한 삼원상호작용항의 설명량이 각각 .04와 .02로, 전념 동일시의 설명량과 전념 동일시를 포함한 삼원상호작용항의 설명량인 .06과 .03에 비해 작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앞선 설명과 일관된 결과가 관찰되었다. 그러나 Cumming(2009)의 기준에 따라 표준화된 베타계수 차이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해본 결과 각각의 분석에서 전념 생성과 전념 동일시, 그리고 전념생성을 포함한 삼원상호작용항과 전념 동일시를 포함한 삼원상호작용항의 표준화된 베타계수는 $p = .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이와 같은 결과를 고려할 때, 전념 생성과 전념 동일시의 차이는 충분히 탐구해 볼 만한 주제이지만 본 연구의 분석으로는 두 변인의 차이를 뒷받침하기 어려우므로, 추후 더 정교한 설계를 동반한 심층적인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전념 생성과 전념 동일시의 기능이 구분되지 않은 결정적인 이유 중 하나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가 이중순환모형이 제시한 다섯 가지 하위 변인(전념 생성, 전념 동일시, 두루 탐색, 깊이 탐색, 반추적 탐색)을 명확히 구분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비롯되었을 수 있다. 상관분석 결과, 두루 탐색과 깊이 탐색의 상관은 .84로 나타났으며, 전념 생성과 전념 동일시의 상관은 .93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또한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적합도 지수는 $CFI = .83$, $RMSEA = .11$, $SRMR = .10$ 으로, 선행 연구에서 제안했던 적합도 기준($CFI \geq .95$, $RMSEA \leq .05$, $SRMR \leq .05$)이 좋은 적합도의 기준이지만, $CFI \geq .90$, $RMSEA \leq .08$, $SRMR \leq .08$ 이면 양호하다고 판단; 박선웅 등, 2023)에 미치지 못했다. 이는 척도를 번안하고 국내 적용 가능성을 확인했던 기존 연구(Park et al., 2023)에서 적합도 지수가 $CFI = .90$, $RMSEA = .08$, $SRMR = .07$ 로 나타났던 것과 다른 결과이다. 이와 같은

차이가 나타난 하나의 이유는 Park 등(2023)의 연구에서는 나이와 국적 외 다른 제한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다양한 교육 수준과 직업의 참가자가 모일 수 있던 것과 달리 본 연구에서는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정체성 발달 수준이 비교적 비슷한 표본으로만 구성되었기 때문일 수 있다. 후속 연구는 다양한 특성의 표본을 대상으로 정체성 발달의 다차원 척도를 사용하고 분석해 봄으로써 척도의 타당성에 대해 반복 검증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학년의 효과는 선행 연구와는 다르게 나타났다. Lockwood와 Kunda(1997)의 연구에서 저학년들은 뛰어난 고학년 학생에 대한 정보를 접했을 때 자기고양 효과가 나타났지만, 본 연구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Lockwood와 Kunda(1997) 연구와 본 연구의 상향사회비교 자극은 뛰어난 학업 성취를 이루고 진취적인 성격을 가졌다는 점에서 유사하지만 중요한 차이가 있다. 선행 연구에서는 비교 대상과 참여자 모두 같은 학과에 소속되어 있었고 비교 대상이 이룬 뛰어난 성취 역시 학과 내에서 이를 수 있는 것이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한 학과 참여자만을 모집하기가 어려워) 비교 대상의 성취에 학업적 성취 이외에 대학생들이 관심이 많은 동아리 활동이나 창업 관련 내용을 포함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본 연구에서 제시한 비교 대상이 창업에 성공해 대기업으로부터 투자를 받는 등 지나치게 뛰어나게 묘사되었을 수 있다. Mussweiler(2003)에 의하면, 적정 수준의 상향사회비교(moderate upward social comparison)는 자기고양으로 이어질 수 있으나, 지나치게 뛰어난 대상과의 상향사회비교(extreme upward social comparison)는 대상과 자신의 차이점에 주목하도록 함으로써 자기평가를 하락시킨다. 비록 저학년에게서 자기고양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본 연구에서 자기평가에 대한 상향사회비교 여부와 정체성 발달의 상호작용이 학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는 점은 주목할 만

하다.

본 연구는 정체성 발달이 상향사회비교가 자기평가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조절함을 확인했으나, 정체성 발달이 조절변인으로 기능하는 기제에 대해서는 살펴보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다. 가능한 설명 중 하나는 정체성이 발달한 사람은 자신만의 기준에 따라 스스로를 평가하기 때문에(Park & Moon, 2022; Soenens & Vansteenkiste, 2011), 사회적 기준에 의해 우월하다고 판단되는 자극에 주의를 두지 않고 그를 무의미하게 여긴다는 것이다. 즉, 정체성이 발달한 사람은 다양한 자극이 존재하는 상황 속에서도 사회비교 자체를 거의 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는 자신에 대해 잘 알고 그에 확신하는 사람이 사회비교 동기나 빈도가 낮다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관된다(Butzer & Kuiper, 2006; Pelham & Wachsmuth, 1995). 또 다른 가능성은 정체성이 잘 발달한 사람도 그렇지 않은 사람과 유사한 사회비교 과정을 거치지만 다르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자신에 대해 잘 안다고 확신하는 사람일수록 상향사회비교 상황에도 열등감을 덜 느끼고 외부의 기준을 내면화하지 않는다(Varanian & Dey, 2013; Zheng et al., 2018). 본 연구는 정체성이 발달한 사람이 상향사회비교 자극에 노출될지라도 자기평가에 영향을 받지 않음을 밝혔지만 그 과정에서 작동한 기제를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후속 연구는 정체성 발달이 동반하는 구체적인 심리적 특성에 대해 밝힘으로써 본 연구의 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기제를 살펴볼 수 있다.

정체성 발달이 상향사회비교와 부정적 자기평가의 관계를 조절할 수 있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다양한 맥락에 확장해 적용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 표본을 모집했기 때문에 대학생들의 보편적인 관심사인 학업과 진로를 주제로 상향사회비교 대상으로 설정했다. 그러나 진로 외에도 대학생은 성격, 외모, 사교 능력 등에서도 사회비교를 하며, 이와 같은 주제에서의 사회비교 또한 자기평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는 점을 고려할 때(Wheeler & Miyake, 1992), 다양한 주제의 상향사회비교 자극을 활용함으로써 정체성 발달의 기능을 확장해 볼 수 있다. 더불어 정체성이 전 생애의 발달과 관련된 주제이며(Stephen et al., 1992) 사회비교가 전 연령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임을 고려할 때(Buunk et al., 2020), 후속 연구를 통해 더 넓은 연령대에서 또한 상향사회비교와 자기평가, 그리고 정체성 발달의 관련성을 탐구해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결과는 현대사회에서 중요한 함의를 가진다. 미디어의 발달로 인해 사람들은 언제 어디서든 쉽게 상향사회비교 정보에 노출된다. 특히 SNS의 사용이 만연해지면서 사람들은 자신의 의도와 관계없이 쉽게 타인의 긍정적인 측면을 부각하는 정보를 마주한다(Veruyn et al., 2020). 이는 사람들이 의식하든 못하든 자기평가가 위협받을 수 있는 환경에 자주 노출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피할 수 없는 위협으로부터 개인이 자기평가를 보호하는 방법으로 정체성 발달 개입을 실행해 볼 수 있음을 제안한다. 예를 들어, Miami Adult Development Project(Meca et al., 2014)는 20대 성인을 대상으로 대학 수업의 형태로 정체성 발달에 대한 강의를 진행한 후, 학기의 마지막 6주 동안 집단 및 개인 단위 활동을 통해 정체성 발달 개입을 실행했다. 구체적으로, 이 기간 동안 참가자들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삶의 목표와 그를 이루기 위한 방법을 정하고, 그 목표와 방식이 자신의 잠재력과 얼마나 잘 맞는지를 평가하며, 목표를 이루기 위한 방법을 실행함으로써 자신의 미래가 어떻게 변할 수 있는지를 상상하고, 집단 활동을 통해 서로 의견을 나눴다. 이 방법을 실행한 결과, 이전에 비해 참가자들은 정체성 관련 스트레스를 덜 경험하고 확고한 정체성을 형성하게 되었다. 이처럼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현대인들의 웰빙을 보호하는 하나의 방안으로서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 탐구하고 스스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심리적 개입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것은 앞으로

의 의미 있는 연구 방향이 될 것이다.

저자 소개

문현은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석사과정(학석사 연계) 학생이다. 주요 연구 관심사로 전생애 인간발달, 주관적 노화, 연령차 등이 있다.

이다에는 서강대학교 심리학과 박사과정에 재학 중이다. 주요 관심 분야는 진정성, 삶의 의미, 성장, 통증 등이다.

김소을은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석사과정 중에 있으며, 주요 관심 분야는 삶의 의미, 정체성, 죽음에 대한 인식 등이다.

박수연은 플로리다 대학교 심리학과 박사과정 중에 있으며, 현재 성인 애착유형 및 사회경제적 지위가 연인 및 부부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박선웅은 고려대학교 심리학과에서 부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정체성과 동기 관련된 주제를 연구하고 있다. 대표 저서로 <정체성의 심리학>이 있다.

참고문헌

- 곽현주, 김현주 (2013). 한국 대학생의 우울 관련 요인에 대한 메타분석. *청소년학연구*, 20(7), 75-98.
- 구제선, 서은국 (2015). 왜 한국 대학생이 미국 대학생보다 불행한가? 상대적 외적 가치, 사회적 지원, 사회비교의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9(4), 63-83.
- <https://doi.org/10.21193/kjspp.2015.29.4.004>
- 김범준 (2011). 대학생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 행복/불행 관련 사건들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5(1), 115-135.
<https://doi.org/10.21193/kjspp.2011.25.1.007>
- 문 현, 이다예, 김소을, 박선웅 (2022). 심리적 웰빙에 대한 서사정체성의 증분타당도: McAdams의 성격 3수준 이론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36(1), 1-24.
<https://doi.org/10.21193/kjspp.2022.36.1.001>
- 박선웅, 김혜민, 이준배, 문 현 (2023). 한국어판 자기개념과 정체성 척도 단축형 개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37(2), 237-258.
<https://doi.org/10.21193/kjspp.2023.37.2.006>
- 박선웅, 박예린 (2019). 불확실한 정체성과 낮은 심리적 안녕감 간의 관계에서 물질주의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33(2), 1-21.
<https://doi.org/10.21193/kjspp.2019.33.2.001>
- 손영화 (2020). 페이스북 이용자의 타인과의 상향비교 및 사회적 지지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자존감을 매개변인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소비자광고*, 21(2), 191-213.
<https://doi.org/10.21074/kjlcap.2020.21.2.191>
- 오은혜, 탁진국 (2012). 경력계획이 주관적 경력 성공에 미치는 영향: 긍정심리자본의 매개효과와 미래시간전망과 코칭리더십의 조절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산업 및 조직*, 25(4), 727-748.
<https://doi.org/10.24230/ksiop.25.4.201211.727>
- 윤가영, 이준배, 박선웅 (2022). 지각된 부모의 학업성취압력과 정신건강 간의 관계에서 정체성 발달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28(4), 529-553.
<https://doi.org/10.20406/kjcs.2022.11.28.4.529>
- 이동하, 탁진국 (2008). 주도성과 핵심자기평가가 경력성공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산업 및 조직*, 21(1), 83-103.
<https://doi.org/10.24230/ksiop.21.1.200802.83>
- 이보슬 (2011). 예술 고등학교 무용전공 학생들의 성공과 실패 지각요인 탐색. *예술교육연구*, 9(3), 45-67.
- 장은영 (2009). 사회비교와 주관안녕: 문화 비교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3(2), 157-169,
<https://doi.org/10.21193/kjspp.2009.23.2.009>
- 조성윤, 노환호, 이병관, 임혜빈 (2020). 인스타그램 이용자의 조건부 자아존중감이 우울 경험에 미치는 영향: 인스타그램 내 상향 비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감성과학*, 23(3), 703-717.
<https://doi.org/10.14695/KJSOS.2020.23.3.91>
- Arnett, J. J. (2000). Emerging adulthood: A theory of development from the late teens through the twenties. *American Psychologist*, 55(5), 469-480.
<https://doi.org/10.1037/0003-066X.55.5.469>
- Asch, S. E. (1956). Studies of independence and conformity: I. A minority of one against a unanimous majority. *Psychological Monographs: General and Applied*, 70, 1-70.
<https://doi.org/10.1037/h0093718>
- Berzonsky, M. D. (2003). Identity style and well-being: Does commitment matter? *Identity: An International Journal of Theory and Research*, 3(2), 131-142.
<https://doi.org/10.1207/S1532706XID030203>
- Berzonsky, M. D., & Ciecuch, J. (2016). Mediation role of identity commitment in relationships between identity processing style and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17(1), 145-162.
<https://doi.org/10.1007/s10902-014-9588-2>
- Bogaerts, A., Claes, L., Verschuere, M., Bastiaens, T., Kaufman, E. A., Smits, D., & Luyckx, K. (2018). The Dutch Self-Concept and Identity Measure (SCIM): Factor structure and associations with identity dimensions and psychopathology.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23(1), 56-64.
<https://doi.org/10.1016/j.paid.2017.11.007>

- Bosma, H. A., & Kunnen, E. S. (2001). Determinants and mechanisms in ego identity development: A review and synthesis. *Developmental Review, 21*(1), 39-66. <https://doi.org/10.1006/drev.2000.0514>
- Boz, B., & Kiremitci, O. (2023). Might “early identity maturation” be a more inclusive concept than identity foreclosure? Identity and school alienation in adolescent student athletes and non-athletes. *Current Psychology, 42*, 9780-9794. <https://doi.org/10.1007/s12144-021-02256-8>
- Buunk, A. P., & Gibbons, F. X. (2007). Social comparison: The end of a theory and the emergence of field.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103*(1), 3-21. <https://doi.org/10.1016/j.obhdp.2006.09.007>
- Buunk, A. P., Dijkstra, P. D., & Bosma, H. A. (2020). Changes in social comparison orientation over the life-span. *Journal of Clinical and Developmental Psychology, 32*(1), 1-11. <https://doi.org/10.6092/2612-4033/0110-2359>
- Butzer, B., & Kuiper, N. A. (2006). Relationships between the frequency of social comparisons and self-concept clarity, intolerance of uncertainty, anxiety, and depression.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1*(1), 167-176. <https://doi.org/10.1016/j.paid.2005.12.017>
- Carter, J. J., & Vartanian, L. R. (2022). Self-concept clarity and appearance-based social comparison to idealized bodies. *Body Image, 40*, 124-130. <https://doi.org/10.1016/j.bodyim.2021.12.001>
- Chou, H. T. G., & Edge, N. (2012). “They are happier and having better lives than I am”: The impact of using Facebook on perceptions of others’ lives. *Cyberpsychology, Behavior, and Social Networking, 15*(2), 117-121. <https://doi.org/10.1089/cyber.2011.0324>
- Cumming, G. (2009). Inference by eye: Reading the overlap of independent confidence intervals. *Statistics in Medicine, 28*(2), 205-220. <https://doi.org/10.1002/sim.3471>
- Dumas, T. M., Ellis, W. E., & Wolfe, D. A. (2012). Identity development as a buffer of adolescent risk behaviors in the context of peer group pressure and control. *Journal of Adolescence, 35*(4), 917-927. <https://doi.org/10.1016/j.adolescence.2011.12.012>
- Erkison, E. H. (1968). *Identity: Youth and Crisis*. New York: Norton.
- Forney, M., & Ward, J. T. (2019). Identity, peer resistance, and antisocial influence: Modeling direct and indirect causes of desistance. *Journal of Developmental and Life-Course Criminology, 3*(1), 107-135. <https://doi.org/10.1007/s40865-018-0102-0>
- Gerber, J. P., Wheeler, L., & Suls, J. (2018). A social comparison theory meta-analysis 60+ years on. *Psychological Bulletin, 144*(2), 177-197. <https://doi.org/10.1037/bul0000127>
- Gonzales, A. L., & Hancock, J. T. (2011). Mirror, mirror on my Facebook wall: Effect of exposure to Facebook on self-esteem. *Cyberpsychology, Behavior, and Social Networking, 14*(1-2), 79-83. <https://doi.org/10.1089/cyber.2009.0411>
- Greenhaus, J. H., Parasuraman, S., & Wormley, W. M. (1990). Effects of face on organizational experiences, job performance evaluations, and career outcomes. *The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33*(1), 64-86. <https://doi.org/10.2307/256352>
- Hardy, S. A., Francis, S. W., Zamboanga, B. L., Kim, S. Y., Anderson, S. G., & Forthun, L. F. (2013). The roles of identity formation and moral identity in college student mental health, healthrisk behaviors, and psychological well being.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69*(4), 364-382. <https://doi.org/10.1002/jclp.21913>
- Hayes, A. F. (2013). *Introduction to mediation*,

- moderation, and conditional process analysis: A regression-based approach.* Guilford Press.
- Kim, H., & Ohtake, F. (2014). *Status race and happiness: What experimental surveys tell us.* KDI Policy Study, 2014-01.
- Lairio, M., Puukari, S., & Kouvo, A. (2013). Studying at university as part of student life and identity construction. *Scandinavian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57*(2), 115-131.
<https://doi.org/10.1080/00313831.2011.621973>
- Lewis, N. (2021). Experiences of upward social comparison in entertainment contexts: Emotions, state self-esteem, and enjoyment. *The Social Science Journal, 58*(3), 339-354.
<https://doi.org/10.1016/j.soscij.2019.04.011>
- Lockwood, P., & Kunda, Z. (1997). Superstars and me: Predicting the impact of role models on the self.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3*(1), 91-103.
<https://doi.org/10.1037/0022-3514.73.1.91>
- Luyckx, K., Goossens, L., Soenens, B., & Beyers, W. (2006). Unpacking commitment and exploration: Preliminary validation of an integrative model of late adolescent identity formation. *Journal of Adolescence, 29*(3), 361-378.
<https://doi.org/10.1016/j.adolescence.2005.03.008>
- Luyckx, K., Klimstra, T. A., Duriez, B., Schwartz, S. J., & Vanhalst, J. (2012). Identity processes and coping strategies in college students: Short-term longitudinal dynamics and the role of personality.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41*(9), 1226-1239.
<https://doi.org/10.1007/s10964-012-9753-z>
- Luyckx, K., Schwartz, S. J., Berzonsky, M. D., Soenens, B., Vansteenkiste, M., Smits, I., & Goossens, L. (2008). Capturing ruminative exploration: Extending the four-dimensional model of identity formation in late adolescence.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42*(1), 58-82.
<https://doi.org/10.1016/j.jrp.2007.04.004>
- Luyckx, K., Schwartz, S. J., Soenens, B., Vansteenkiste, M., & Goossens, L. (2010). The path from identity commitments to adjustment: Motivational underpinnings and mediating mechanisms.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88*(1), 52-60.
<https://doi.org/10.1002/j.1556-6678.2010.tb00150.x>
- Marcia, J. E. (1966).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ego-identity statu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5), 551-558.
<https://doi.org/10.1037/h0023281>
- Marcia, J. E. (1967). Ego identity status: Relationship to change in self-esteem "general maladjustment," and authoritarianism. *Journal of Personality, 35*(1), 119-133.
<https://doi.org/10.1111/j.1467-6494.1967.tb01419.x>
- Marcia, J. E. (1993). The status of the statuses: Research review. In J. E. Marcia, A. S. Waterman, D. R. Matteson, S. L. Archer, & J. L. Orlofsky, (Eds.), *Ego identity: A handbook for psychosocial research* (pp. 22-41). New York: Springer-Verlag.
- Meca, A., Eichas, K., Quintana, S., Maximin, B. M., Ritchie, R. A., Madrazo, V., ... Kurtines, W. M. (2014). Reducing identity distress: Results of an identity intervention for emerging adults. *Identity: An International Journal of Theory and Research, 14*(4), 312-331.
<https://doi.org/10.1080/15283488.2014.944696>
- Meeus, W., Dekovic, M., & Iedema, J. (1997). Unemployment and identity in adolescence: A social comparison perspective. *The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45*, 369-380.
<https://doi.org/10.1002/j.2161-0045.1997.tb00540.x>
- Meeus, W., Iedema, J., Helsen, M., & Vollebergh, W. (1999). Patterns of adolescent identity development: Review of literature and longitudinal analysis. *Developmental Review, 19*(4),

- 419-461. <https://doi.org/10.1006/drev.1999.0483>
- Morse, S., & Gergen, K. J. (1970). Social comparison, self-consistency, and the concept of self.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4*(1), 148-156. <https://doi.org/10.1037/h0029862>
- Muller, D., & Fayant, M. (2010). On being exposed to superior others: Consequences of self-threatening upward social comparison.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Compass*, *4*(8), 621-634. <https://doi.org/10.1111/j.1751-9004.2010.00279.x>
- Mussweiler, T. (2003). Comparison processes in social judgment: Mechanisms and consequences. *Psychological Review*, *110*(3), 472-489. <https://doi.org/10.1037/0033-295X.110.3.472>
- Park, S. W., Kim, S., Moon, H., & Cha, H. (2023). Incremental validity of narrative identity in predicting psychological well-being: A replication and extension in Korean adults. *Narrative Inquiry*, *33*, 176-191. <https://doi.org/10.1075/ni.21047.par>
- Park, Y., Kim, S., Kim, G., Johnson, S. K., & Park, S. W. (2023). Testing a process-oriented model of identity development in South Korean young adults. *Current Psychology*, *42*, 5447-5461. <https://doi.org/10.1007/s12144-021-01838-w>
- Park, S. W., & Moon, H. (2022). Assessing identity formation via narratives. *Current Psychology*, *41*(6), 4066-4078. <https://doi.org/10.1007/s12144-020-00926-7>
- Pelham, B. W., & Wachsmuth, J. O. (1995). The waxing and waning of the social self: Assimilation and contrast in social comparis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9*(5), 825-838. <https://doi.org/10.1037/0022-3514.69.5.825>
- Pisarik, C. T., Rowell, C. P., & Thompso, L. K. (2017). A phenomenological study of career anxiety among college students. *The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65*(4), 339-352. <https://doi.org/10.1002/cdq.12112>
- Ritchie, R. A., Meca, A., Madrazo, V. L., Schwartz, S. J., Hardy, S. A., Zamboanga, B. L., ... Lee, R. M. (2013). Identity dimensions and related processes in emerging adulthood: Helpful or harmful?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69*(4), 415-432. <https://doi.org/10.1002/jclp.21960>
- Ryeng, M. S., Kroger, J., & Martinussen, M. (2013). Identity status and self-esteem: A meta-analysis. *Identity: An International Journal of Theory and Research*, *13*(3), 201-213. <https://doi.org/10.1080/15283488.2013.799431>
- Schmuck, D., Karsay, K., Matthes, J., & Stevic, A. (2019). "Looking up and feeling down." The influence of mobile social networking site use on upward social comparison, self-esteem, and well-being of adult smartphone users. *Telematics and Informatics*, *42*, 101240. <https://doi.org/10.1016/j.tele.2019.101240>
- Soenens, B., & Vansteenkiste, M. (2011). When is identity congruent with the self? A self-determination theory perspective. In S. J. Schwartz, K. Luyckx, & V. L. Vignoles (Eds.), *Handbook of identity theory and research* (pp. 381-401). Springer Science + Business Media. https://doi.org/10.1007/978-1-4419-7988-9_17
- Stephen, J., Fraser, E., & Marcia, J. E. (1992). Moratorium-achievement (mama) cycles in lifespan identity development: Value orientations and reasoning system correlates. *Journal of Adolescence*, *15*(3), 283-300. [https://doi.org/10.1016/0140-1971\(92\)90031-Y](https://doi.org/10.1016/0140-1971(92)90031-Y)
- Suls, J., Martin, R. & Wheeler, L. (2002). Social comparison: Why, with whom, and with what effect?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11*(5), 159-163. <https://doi.org/10.1111/1467-8721.00191>
- Sznitman, G. A., Zimmermann, G., & Van Petegem, S. (2019). Further insight into adolescent

- personal identity statuses: Differences based on self-esteem, family climate, and family communication. *Journal of Adolescence*, 71, 99-109.
<https://doi.org/10.1016/j.adolescence.2019.01.003>
- Toder, N. L., & Marcia, J. E. (1973). Ego identity status and response to conformity pressure in college wome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26, 287-294.
<https://doi.org/10.1037/h0034477>
- Vartanian, L. R., & Dey, S. (2013). Self-concept clarity, thin-ideal internalization, and appearance-related social comparison as predictors of body dissatisfaction. *Body Image*, 10(4), 495-500.
<https://doi.org/10.1016/j.bodyim.2013.05.004>
- Verduyn, P., Gugushvili, N., Massar, K., Täht, K., & Kross, E. (2020). Social comparison on social networking sites. *Current Opinion in Psychology*, 36, 32-37.
<https://doi.org/10.1016/j.copsyc.2020.04.002>
- Vogel, E. A., Rose, J. P., Roberts, L. R., & Eckles, K. (2014). Social comparison, social media, and self-esteem. *Psychology of Popular Media Culture*, 3(4), 206-222.
<https://doi.org/10.1037/ppm0000047>
- Waterman, A. S. (2007). Doing well: Relationship of identity status to three conceptions of well-being. *Identity: An International Journal of Theory and Research*, 7(4), 289-307.
<https://doi.org/10.1080/15283480701600769>
- Waterman, A. S., Schwartz, S. J., Hardy, S. A., Kim, S. Y., Lee, R. M., Armenta, B. E., ... & Agocha, V. B. (2013). Good choices, poor choices: Relationship between the quality of identity commitments and psychosocial functioning. *Emerging Adulthood*, 1(3), 163-174.
<https://doi.org/10.1177/2167696813484004>
- West, S. G., Aiken, L. S., & Krull, J. L. (1996). Experimental personality designs: Analyzing categorical by continuous variable interactions. *Journal of Personality*, 64(1), 1-48.
<https://doi.org/10.1111/j.1467-6494.1996.tb00813.x>
- Wheeler, L., & Miyake, L. (1992). Social comparison in everyday lif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2(5), 760-773.
<https://doi.org/10.1037/0022-3514.62.5.760>
- Wood, J. V. (1996). What is social comparison and how should we study it?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2(5), 231-248.
<https://doi.org/10.1177/0146167296225009>
- Yang, H., & Oliver, M. B. (2010). Exploring the effects of television viewing on perceived life quality: A combined perspective of material value and upward social comparison. *Mass Communication and Society*, 13(2), 118-138.
<https://doi.org/10.1080/15205430903180685>
- Zheng, X., Baskin, E., & Peng, S. (2018). Feeling inferior, showing off: The effect of nonmaterial social comparisons on conspicuous consumption. *Journal of Business Research*, 90, 196-205.
<https://doi.org/10.1016/j.jbusres.2018.04.041>
- Zimmermann, G., Lannegrand-Willems, L., Safont-Mottay, C., & Cannard, C. (2015). Testing new identity models and processes in French-speaking adolescents and emerging adults student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44, 127-141.
<https://doi.org/10.1007/s10964-013-0005-7>

1 차원고접수 : 2023. 08. 07.

수정원고접수 : 2023. 10. 03.

최종게재결정 : 2023. 10. 05.

Identity Development and College Year Moderate the Relation Between Upward Social Comparison and Negative Self-Evaluation among College Students

Hyun Moon¹⁾ Da Ye Lee²⁾ Soul Kim¹⁾ Soo Yeon Park³⁾ Sun W. Park¹⁾

¹⁾Korea University ²⁾Sogang University ³⁾University of Florida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moderating role of identity development and college year in the relation between upward social comparison and negative self-evaluation among college students. Based on the dual-cycle model proposed by Luyckx et al. (2006, 2008), we hypothesized that commitment variables (commitment making and identification with commitment) would moderate the negative effect of upward social comparison on self-evaluation. Additionally, we expected that the interaction between upward social comparison and identity development would vary between lower-year and upper-year students due to differences in the perceived attainability of the target's success. A total of 121 undergraduate students completed a measure of identity development, were randomly assigned to either the upward social comparison condition or control condition, completed a self-evaluation measure, and reported their college year. As a result, we found significant three-way interactions among upward social comparison, college year, and commitment variables (marginally significant for commitment making). Specifically, the significant interaction between upward social comparison and commitment variables was observed only among upper-year students. This indicated that upper-year students with high commitment making or identification with commitment did not differ in their self-evaluation regardless of a condition they were assigned to, while those with low commitment making or identification with commitment exhibited lower self-evaluation in upward social comparison condition than the control condition.

Keywords : upward social comparison, identity development, dual-cycle model, college students, college year, self-evaluation